

韓國文學과 번역

金 鍾 云

筆者는 자신을 번역의 전문가라고 생각해 본 일도 없거니와 또 그런 자격도 구비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外國문학을 공부한답시고 내걸은 탓인지 심심치 않게 그 방면의 청탁이 있고 하여 여지까지 譯筆(?)을 휘두른 분량을 총합하면 꽤 많은 분량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추호의 거짓도 없이 말하여 이 사실은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아니, 자랑은 커녕 오히려 어느 정도 수치스러운 기분마저 드는 것이다. 筆者의 본직이 그것이라면 떳떳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만큼 의도불한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분량 가운데의 상당량이 우리 글을 英語로 옮긴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낮이 뜨뜻해짐을 느낀다. 英語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英語에 능통한 사람들이 읽어보면 오죽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대로 그런 청탁은 아직도 끊기지 않는다. 인재의 부족이 원인인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사절도 하여 보았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싸한 얼굴 표정으로 청탁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厚顏인지 「배짱」인지 모를 기술마저 구비하게 되었다. 이번의 「書齋의 苑」의 원고 청탁도 사실은 이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청탁이다. 편집자가 제시한 제목이 「韓國文學과 번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筆者는 번역의 청탁을 받을 때와 꼭 같은 「배짱」으로 붓을 들어 그간 번역과 관련되어 느낀바 몇가지를 적어 보려 하는 터이다.

※ 필자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영문학 전공,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사과장

번역과 노벨賞

1968 년도의 노벨文學상이 이웃나라인 日本의 가와바따 야스나리라는 작가에게 수여되게 되었다는 소식이 월여 전에 발표되었다. 세계적으로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약간의 흥분을 자아내는 소식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노벨文學상이라하면 세계의 대부분의 작가나 시인들이 그런 영예가 혹시 자기 차지가 되리라고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大賞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東洋人으로서는 印度의 타골에 이어 두번째 밖에 안되는 영예라는 것도 그 흥분에 풀러스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관심은 번역에 있다. 가와바따氏 수상 소식에 전하는 흥분이 가셔갈 무렵 「타임」誌의 독자투고란에 편지 한 장이 실렸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물론 美國사람이 겠지만 가와바따氏의 수상을 경축한 뒤에 그러나 瑞典 翰林院의 文學상 분과위원들이 日語로 가와바따氏의 작품을 읽었을 리가 없으니 그의 작품을 번역한 싸이덴스티커 교수의 노고를 치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문장 귀절 한토막을 인용하여 재탄 삼탄하는 글귀로 편지를 끝맺고 있었다.

적어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문제를 생각케 한다. 우선 우리나라 文人은 언제나 그런 영예를 누릴 수 있을까,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작품들이 외국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 첩경이겠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전에 美國 사람들과 회동하는 자리에 나간 일이 있었다. 노벨賞의 발표가 있는 직후의 일인지라 얘기가 자연히 그리로 집중되게 되었다. 대부분의 美國 사람들이 발하는 질문은 가까운 장래에 韓國의 시인이나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 것 같느냐는 것이었고 대다수의 韓國 사람들의 답변은 글썽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筆者는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입밖에 내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몹시 비관적인 답변 밖에 나오지 않을 수 없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물론 나는 나대로 몇 가지의 근거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던 것이

다. 원래 노벨文學賞은 정치적인 고려나 안배가 작용한다는 비난을 받은 일이 간혹 있었고, 또 그런 비난이 한낱 헛뜯기 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물론 세계미인大會의 「미스 유니버어스」의 경우처럼 그렇게 노골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韓國이 가까운 장래에 이런 정치적인 고려나 안배를 받을만한 아무런 징조도 없다.

그렇바에야 순전히 작품이 질적으로 압도적인 것이 韓國에서 나오는 것이 또 하나의 길이겠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도저히 그렇지 못한 것 같다. 今年으로 六十년을 맞는 韓國의 신문학이 다채로운 행사로 기념되었지만 그 총 결산을 놓고 볼 때에 과거 업적에 대한 自視보다는 역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다짐이 앞서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유야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에 의한 표현을 몸에 붙이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또 이 전통의 단절은 비단 표현양식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뿌리깊은 단절에 연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李朝시대를 통하여 억압당한 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 文學은 우리 고유의 美의 세계를 발굴하는 鑛脈을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 같다. 西歐식의 文學양식을 도입하기에 급급하였고, 우리 文學을 읽는 우리 자신이 우리 文學을 評함에 있어 전통적 심미감과 西歐적인 감각의 갈등 속에서 확연한 좌표를 설정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하물며 노벨賞이 번역이란 또 하나의 관문을 필요로 함에랴? 근자에 우리 文學의 번역(主로 英語로)이 차츰 활발해지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하나의 출발이기는 하다. 그러나 외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이 곧 외국에 대한 우리 文學의 정당한 소개를 의미한다는 소박한 생각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Robert Frost 는 「번역과정에서 상실되는 것은 文學이다」라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고 伊太利에서는 옛부터 「번역은 반역」이란 의미의 격언을 갖고 있다. 전통, 문화, 관습, 기질을 달리하는 타국어로 작품을 번역하였을 때에 文學이 百%로 전달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렇다고 번역 비관론에 그칠 수는 없다. 자고로 성공적인 번역작품의 예도 허다하니까. 예컨대 Goethe 는 Faust 의 英譯이 원작보다도 더 좋다고 말 했다는

에도 있으니까 말이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가 된다.

확실한 이론적 근거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해결책이 경험론적으로 입증된 것이 하나 있기는 하다. 그 자신이 문학적 재능을 풍부하게 지닌 外國人이 동시에 우리 문학에 대한 깊은 소양과 이해를 갖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우리의 작품을 자기 나라의 말로 옮기는 길이 그것이다. 최근에 있었던가와바타=사이덴스티커의 方程式도 그랬지만 자고로 성공적인 번역은 늘 이런 관계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재능있는 外國人으로 하여금 우리文學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느냐는 것이 되겠다. 미숙한 솜씨나마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번역 아닌 반역(?)을 계속하는 것도 一助가 안되지 않는 않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原作의 작품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命題로 되돌아 가야 한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그런 「완벽한 번역자」를 만나는 일인데 여기에 소위 「偶然」의 힘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詩神의 미소」가 여기에도 붙어야 하나보다.

直譯과 意譯

우리는 中學校 시절 이래로 直譯과 意譯이란 단어를 수 없이 들어왔고 또 그런 단어가 어떤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 많은 佛經을 산스크리트로부터 中國語로 번역한 鳩摩羅什도 그의 序文中에서 「直譯」과 「意譯」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였다는 의미의 말을 술회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런 생각은 비단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닐뿐더러 文學作品의 번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닌상 싶다.

그럼 과연 直譯과 意譯은 그렇게 대립적이고 상극적인 개념일까? 확연한 한계선을 긋기는 매우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런 대립 관계를 무의미하게 쓰고있다는 것이 筆者의 판단이다. 特히 各級의 學校에서 學生들이 사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더욱 그렇다.

學生들이 당면하는 번역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直譯이고 무엇이 意譯인가,

대부분의 경우 學生들은 「拙譯」을 直譯이라하고 「巧譯」을 意譯이라 부르는 것이 아닌가? 또 심한 경우에는 「誤譯」을 直譯이라하고 「正譯」을 意譯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극단한 예가 되겠지만 “Good morning”을 「좋은 아침」이라고 하며 直譯이라하고 「안녕히 주무셨오?」로 하고 意譯이라 하는 것이 아닌가? 兩國語 사이에 완전히 모든 것이 부합되는 문화적인 병행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최선의 근사치를 지적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번역이란 과정이 아닌가? 사실상 플로베르가 文章에서 *mot juste* 를 운운한 것은 어느 정도 번역에도 적용되는 애기다. 알 just ranslation 이라고나 부를까? 대체로 학생들은 直譯과 意譯의 대비를 생각하느니 보다는 拙巧와 正誤의 대비에 머리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모든 것이 여기서 명쾌하게 해명된 것은 아니다. 자고로 번역의 두 통거리가 되어있는 「逐語譯」과 「文藝譯」의 문제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逐語譯이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academic 한 번역을 뜻하며 學者적인 처지에서 해박한 각주를 달아가며 고증과 출전을 따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文藝譯은 前者의 학식은 결여되었을지 몰라도 原作의 文學的 가치나 정신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면 사실상 逐語譯과 文藝譯은 주로 古典 번역에 등장하는 문제라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逐語譯과 文藝譯의 구분이나 대립은 各級學校의 學生들이 당면하는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古典文學을 번역함에 있어서 用途의 판단이나 번역자의 취미 따위로 좌우되는 번역의 「態度」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규정할 수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전문가들 사이에 진지하게 논의가 계속될 문제이다. 筆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어 다시 한번 되풀이 하자면 우리가 흔히 운위하는 直譯과 意譯은 대체로 拙巧나 正誤로 다스릴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데에 반하여 逐語譯과 文藝譯은 각기 다른 태도에 근거를 둔 것으로 서로 각자의 정당성을 내세울 여지를 갖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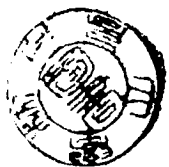
번역과 文體

여기서 文體라고 함은 「말 투」정도의 간단한 의미로 쓴 말임을 미리 적어 둔다. 광범한 자료를 근거삼아 하는 말은 아니지만 번역에 쓰이는 文體는 다소간 번역 文體라고 부를 수 있는 독특한 文體를 갖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런 생소한(非土着的인) 文體가 처음으로 쓰일 때는 어색하기 짝이 없고 귀에 거슬리는 일도 많다. 물론 이것을 번역의 줄열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外國의 말은 잘 아는지 몰라도 자기 나라의 말을 모르는 엉터리 번역자들의 소행이라고 분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文體의 번역에 국민생활이 의존하게 되는 정도가 심하여지면 부지부식간에 그 文體가 土着化할 수도 있다는 데어 있다. 물론 그 자체는 善도 아니고 惡도 아니다. 굳이 가치판단을 해야한다면 그만큼 우리 글의 文體가 풍부하여 졌으니 「편리」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市中에 나도는 日刊신문을 아무것이나 펴들어서 一面의 外信기사를 읽어 보면 족하다. 그 文體는 텔레타이프에 기록된 原文을 능히 逆譯해낼 수 있을 정도의 특이한 文體이다. 1945년에 한국에 진주한 美軍사령관 하 中將의 着韓聲明에 비롯한 「親愛하는 韓國民 여러분」이란 투는 李承晚박사가 애용한 탓도 있지만 이제 우리 생활에서 뱉 수 없는 문구가 되고 말았다. 이 외에도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번역이 그나라의 文體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거의 정당한 것 같다.

筆者는 위에서 이런 文體의 土着化가 文體를 풍부히 하니까 편리하고 따라서 功利的인 견지에서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더 좀 깊게 생각하면 해독을 끼친 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글의 순수성 운운하는 말을 끄내자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歷史적으로 보아 순수성을 고집한 언어는 발전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되도록 많이 善用한 언어일수록 다이나믹한 언어가 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지 오래기 때문이다.

이런 文體가 우리나라에 끼친 害毒은 그럼 무엇인가? 筆者가 보기에



韓國의 現代詩가 그 피해자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現代詩는 다른 文學양식과 마찬가지로 번역이란 과정을 통하여 수입되었다. 英·美·佛 등의 現代詩가 번역되어 도입되고 그것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現代詩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개재하는 必要惡적인 존재가 번역이다. 그 번역이 갖는 文體는 우리의 現代詩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쳤다고 나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많다고 본다. 번역이 (특히 詩의 번역이) 詩想이나 思想(메세지)이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은 노력여하에 따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무시된 것은 外國의 詩가 갖는 音樂性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現代詩는 外國의 詩에서 보는 바와 같은 깜짝 놀랄만한 이미지의 속출, 그리고 메세지는 내포하지만 外國詩가 갖는 音樂性(詩 감상을 끝없는 즐거움으로 만드는 큰 원동력은 사실 여기에 있지 않을까?)을 결여한다. 그 정도는 대학신문 같은 것에 실리는 學生들의 현대시 일수록 점점 심해진다.

韓國的인 리듬, 韓國的인 言語의 音樂을 빨리 우리 詩에 되살려야 할 것이다.

이상 두서 없이 살펴보았다. 번역과 우리 文學을 두고 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많다. 批評의 방도로서의 번역, 또는 창작과 번역과의 관계 등등. 그러나 약속한 지면 관계상 다른 기회로 미루어야 하겠다.